

기생충 弘報館 개관

기협 서울시지부, 9월3일에

기생충의 위해와 국민건강을 위한 寄生虫 홍보관이 지난 9월 3일 개관되었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서울시지부는 기생충에 대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관을 개설했는데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의 전 기협 서울시지부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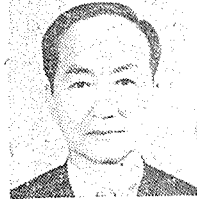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생충상담을 비롯하여 치료, 검사, 시청각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기생충자료를 전시해서 전시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또 홍보관에는 의사 1명, 임상병리기사, 홍보요원, 보조요원을 배치, 근무케 된다. (전화 73-1683)

서병설, 소진탁 부회장 기협지부 시찰

기생충자조방역사업 독려

기협의 서병설부회장(서울의대 기생충학교수)과 한리국 기획부장겸 사업부장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남 전북지부를 시찰하고 기생충사업현황을 독려했다.

그런데 이번 시찰의 주요목적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주민자조방역사업(住



李于馥 총장 渡日

—강원·충북지부청사
건축협의차—

기협 이우부(李于馥) 사무총장은 8월 17일부터 10여일간 업무협의차 일본을 방문했다.

이총장은 동경에 있는 일본만국박람회(日本萬國博覽會) 기념협회와 일본기생충예방회를 둘러보았는데 주요 방문목적은 일본의 의료사업 및 기생충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시찰이었다.

또한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강원도지부와 충북지부 청사의 건물신축에 대한 상담도 겸하게 되는데 일본만국박람회기념협회와 일본기생충예방회는 과거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본부건물 및 각 시도지부 청사를 세우는데 많은 원조를 제공한바 있다.

民自助防疫事業)의 득려 및 지도에 있었으며 지부의 기생충박멸사업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진탁부회장(연세의대 기생충학교수)과 이우복사무총장도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같은 목적으로 경남, 경북지부를 시찰코 주민자조방역사업을 득려, 지도했다

임시이사회 개최

寄協, 8월 2일에

기협 76년도 제 2차 임시이사회가 지난 8월 2일 오후 3시 기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7명의 이사와 보사부 담당계장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과 4개의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별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보고사항 및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 사항

- 1) 76년도 경리현황보고
- 2) 76년도 순계학생집변중로실적보고
- 3) 일반집변실적 보고

2. 부의 안건

제1안 197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건의
제 2안 김변에 따른 투약조정 및 의결의건

제 3안 일반회계자금 일시전용(충남, 경북지부)

제 4안 76년도 주민자조방역 특별회계 예산(안)승인의건

先檢便 後投藥을 강조

— 朴次官, 기생충관리

대책위원회에서 —

보사부는 지난 6월 26일 사계권위학자와 유관부처인사로 구성된 기생충관리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다 효율적인 기생충관리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 끝에 학생및 일반국민에 대한 驅虫藥投藥사업을 유료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는 그러나 生保者에 대해서만은 계속 무료투약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굳혔다.

또한 이회의에서는 기생충검사과정에서 반드시 그 「先檢便, 後投藥」의 과정을 재확인했는데 이 회의에서 박승함보대부차관은 投藥과정에서 『기생충약을 기생충이 없는 사람에게 投藥을 실시함은 語不成說로 꼭 先檢便, 後投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무료투약하고 있는 구충제인 「비테라진」을 앞으로 「파란텔팔모에이트」로 대체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홍보활동 활발히

충북지부, KBS·TV에

기협 충청북도지부는 지난 7월중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 기생충의 위험을 널리 선전하여 驅虫의 효과를 한층 높이게 했다.

즉 지난 7월18일 KBS·TV를 통해 계소에 부착된 기생충상태와 검사과정 등을 방영했으며 라디오 보도 16회, 육단크기의 신문보도(忠淸日報 7월 30일 字) 등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다.